제653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1년 11월 4일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국장 : 이형수

2001년도 제6차 성찬식(1부에서 5부까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요 14:30~31).

이번 주일 낮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은 주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언약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세상의 쾌락과 영혼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 그분과 함께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한다.

'성찬' 에 대한 소고

"우리는 과거분만 아니라 미래와 관련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찢긴 몸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를 기념하는 것이다(마 26:28).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이 특수한 목적과 성취, 바로 대속이다. 성례에 참예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어린양을 우리 대신으로 주셨음을 고백한다는 의미이다. 그 어린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제사장이요 희생 제물이다".('The Church' 中에서, E. P. Clowney)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기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성찬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게 한다. 즉,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으며, 그 피를 흘리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양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어린양 예수' 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불해야 할 죄값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1교육관 시설활용 기본방향(1)

각 부서의 소유개념에서 공동개념으로

제1교육관의 개보수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이후에 각 부서가 교육관 공간활용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주어진 공간을 '소유' 개념을 가지고 폐쇄형으로 사용하였다(예를 들어서 '교사실'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어진 공간을 '공동' 개념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 즉 시간대별로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열린 공간'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린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서 제1교육관의 시설이 아주 다양하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므로 제1교육관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는 지금부터 공동개념에 적합한 활용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공간을 서로서로 양보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11월 정기당회 (7일) 수요2부 예배 후, 당회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 6일(화) 17 · 19교구

지난 수요예배 메시지

"아브라함의 시험" (창 22:1~2)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태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또 다른 계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쳤다. 그 시험은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면허증 취득과 같은 세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시험도 아니었다. 그 시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었으며, 분명히 믿음의 시험이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2절). 주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종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다.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잘못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라고 강조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가혹하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라고 말씀하셨다. 더군다나 노아에게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창 9:6), 변덕스러움을 느끼게 할 요구를 하셨다. 혼란스러움, 몰이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늘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 는 주님의 명령이 그렇지 아니한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3절).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내면의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가 망설임 없이 민첩하게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만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아니었다면, 그의 행동은 분명히 몰지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도망하지 않았다. 그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생각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도망하고 멀어져 가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제 삼 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4절). '삼 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의 마지막 시간!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돌이켜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삼 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만을 생각하며 걸었고, 그곳을 바라다보았을 뿐이다. 모리아 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들의 죽음이 임박해 온다는 사실에 분명히 그의 마음에 고통과 번민이 있었겠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었을 뿐이었다.

"내 아버지여 …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7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뼈를 깎는 듯한 질문이 아브라함의 귓전을 때렸다. 고통스러움의 극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제물 삼아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7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도 똑같이 대답했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1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고통스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는 이삭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답한 것이었다. "아들아 번제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8절). 놀랍게도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믿음은 실제가 되었다(13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9~10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독생자를 드렸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히 11:17). 만일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순종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다. 결코 자신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이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을 드리고 고난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뜻이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20~22). 하나님은 가끔씩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물으신다. 아브라함에게는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세 번씩이나 직접 물으심으로써 사랑을 확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의심' 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는가?

신학 칼럼

은혜언약의 성질

일반적으로 언약에는 두 면이 있다. 곧 그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다. 절대적이이고 일방적인 언약이란 사실 명칭상 하나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은혜언약은 일방적(一方的)인 것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은혜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은혜언약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유로우며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계약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볼 때 이 은혜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삼하 7:8~9)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은 다윗이 사전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속한 것이다. 물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고난의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시련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며 그에게 영원한 위가 약속되며 메시야의 조상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아낌없이 축복하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의지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이다. 이것이 은혜언약의 성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혜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인 동시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차병준(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Sermon for next week

To be a believer

(Hebrews 3:15-19)

"They were not able to enter because of unbelief."

The author of Hebrews begins today's verses with the phrase "while it is said", which refers to what the Bible says, and what the Bible says concerns what God says. It is by His authority that the following message is given.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v. 15). They refers to Israel.

When you look at verses 7 and 8 in this chapter, you read,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This wonderful message comes up twice in this chapter. The first time is meant for reflection of what happened in the Old Testament. The second reference is meant for us now, for "Today if you hear His voice".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What God said to Israel was essential, but more important is what God is now saying to you. Let's look into the Old Testament to uncover the catastrophe of unbelief, so that we may not follow the same example of disobedience. Although God has promised believers today that they may enter His rest, some may fail to experience it because of unbelief.

The Israelites were a proud people. They were the offspring of Abraham and the people who held in their hands the beautiful Bible that Moses received from God and had given to them. Not only that, they were the people who had the privilege to look at the presence of God in the cloud that led them onward in their journey to the Promise Land. They experienced the provisions of God by eating manna from heaven and having something to drink everyday in the wilderness. They had a great leader, Moses, and a great priest, Aaron, and a wonderful server named Miriam. All the people of Israel had God to care for them. Everyday they experienced God's love and grace. They were the people God called to be His. What more could they need? They possessed everything!

How about you? As a Christian, God provides everything for you. All your needs, not some needs, but literally all your needs are in His care every day. Like the Israelites, your life is a journey toward God's kingdom. His presence, purpose, and plans are with you in every step. But what do you do? Every day you complain with your mouth about this or that. That's why the Bible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Isn't this absolutely true? Just a little bit of a hard time in our environment and we complain. Look at Numbers 14:8,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then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a land which flows with milk and honey." Is this true or not? "The Lord said to Moses, how long will this people spurn Me? And how long will they not believe in Me, despite all the signs which I have performed in their midst (Num. 14:11)? These words of God are very sad. All His works were pushed aside because of unbelief.

Who was God angry with for 40 years? He was angry at the Israelites (see v. 17). Were they believers or unbelievers? Were they God's people or Gentiles? As a Christian believer, how much are you unhappy, angry, or displeased with your life's difficult situations? How often are you proud, boastful, and pretentious about your life's easy circumstances? The Israelites were called God's people. They believed in God. They knew Him intimately. In their hands they held the best gift from heaven. Their eyes saw, their bodies felt, but their mouths complained from anger. Why is that? Because they didn't truly believe with their hearts. Their unbelief led to disobedience, "And to whom did He swear that they would not enter His rest, but to those who were disobedient (v. 18)?

Revelation 20:12 says, "And I saw the dead, the great and the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from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deeds." God has records. He documents all your acts and deeds. Your deeds are not by hand but by your mouth, which represents the things of your heart. So, are you happy and content because you are a Christian? Do you rejoice in suffering or complain?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lake of fire" (Rv. 20:14). Who receives such punishment? The people whose hearts are hardened.

Is your hearts soft or stubborn? Think of how soft and caring is the heart of Jesus. He gave up all heavenly things. He loves us so much that He came, not to judge, but to save sinners. Whoever believes in Him receives eternal life and whoever does not believe eternally perishes (see Jn. 3:16-17).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judged; he who does not believe has been judg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Jn. 3:18). So, what do you believe? Moses was faithful in God's house, "but Christ was faithful as a Son over His house—whose house we are, if we hold fast our confidence and the boast of our hope firm until the end" (Heb. 3:6). We, as believers, are now God's household, but to enjoy that position requires that we hold fast to our moorings, "For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fast the beginning of our assurance firm until the end" (Heb. 3:14). You have to believe to hold on. Only during your life do you have this opportunity. There is a limit. We don't know when this life ends, whether its today, tomorrow, or sometime in the future. For some, tomorrow may never come, just today is available. That's why when we hear God's word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we must take them to heart. It's a wonderful invitation that contains unconditional blessings. The words are promised to believers.

My dear friend, submit your life to Christ this time, right now. Without faith you cannot please God,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Heb. 11:6).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The answer is salvation. For those who think comfort, convenience, enjoyment, and relaxation are more important most times, that life goes to hell. Did Jesus comes to this earth to make you comfortable, relaxed, famous, or wealthy? No, He came to this earth to save your life. Is this true or not? Oh, how many believers don't hold on to this truth. Please don't take your salvation lightly. Eternal salvation is so important.

In the Israelites actual everyday life they saw God's blessings but chose a hard life. The Bible tells us,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r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Rom. 10:10). Amen! These are the simultaneous actions of a believer; one inward (heart) and the other outward (mouth). So many professed Christians say they believe but their mouths confess a different truth. God's Word tells u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Rom. 10:11). Are you a believer?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upon Him. Whoever wi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from the Word of Christ. Are you hearing the word of Christ? How's your heart condition?

To be a believ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Jesus came to this earth for you, for your heart, life, eternity, and salvation. The result of sin is death. Jesus died for you and you have new life, if you believe from your heart and mouth. This life is but a vapor, so it is only for a little time that trials and tribulations confront us. So, don't complain when so great a salvation awaits you. Instead, rejoice and praise the Lord. Can't you see how much blessing surrounds you? As one of God's people, become a believer. Amen.

믿는 자가 되라

(히 3:15~19)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김 성 관 목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일렀으되"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문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언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하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뒤에 주어지고 있습니다(15절).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이 7절과 8절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이 놀라운 메시지는 히브리서 3장에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으로 인한 재앙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약성경을 조명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경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베푸는 안식에 들어올 것을 약속하셨지만, 어떤 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

이스라엘은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귀중한 성경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길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특권을 누렸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 자신들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아론'과 같은 위대한 제사장,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부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닌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언제나 그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와 주의 뜻, 그리고 계획은 모든 발걸음마다 늘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날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렵고 고달픈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낙담합니다. 민수기 14:8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민 14:11).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의 약속에서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섬겨라

누가 하나님을 사십 년 동안 화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17절 참고). 과연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인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얼마만큼이나 불행해하고 분노하며, 불만스러워 하십니까? 반대로 어려움 없는 환경 속에서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으로 가득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두 손에는 하늘로부터 내린 가장 좋은 선물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화를 내며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18절).

입술의 열매를 생각하라

계시록 20:12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행위는 손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입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 20:14). 누가 이러한 형벌을 받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완고하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만일 그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요 3:16~17 참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히 3:6). 믿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안 식구이지만, 지속적으로 믿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맬 것을 요구받는 신분임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인내는 단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날을 모릅니다.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또는 미래의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일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단지 오늘이 유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무제한적인 축복이 담긴 놀라운 초청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너희 구원을 붙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구원입니다. 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시간에 위로, 편함, 즐거움, 그리고 안락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애의 마지막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함, 인기와 부귀를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놓쳐버리는지요.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구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열납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같이 그들의 삶에서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동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마음)과 외면(입술)의 일치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입술로는 다른 진리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롬 10:11).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그와 같이 주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셔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새 생명을 얻으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 영원함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과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 생명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면된 시련과 고난은 잠시 잠깐 동안일 뿐일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구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발견할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프리카 R국 이야기 – 다섯, 마지막

권 요 셉 (평신도 단기선교사)

미국 테러 사태가 터졌다. 그로 인해 특별히 바뀐 것은 없었지만 괜히 기분이 이상했다. 어디를 가든 미국 사태가 화제였다.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R 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하는가 하면 일부는 서둘러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R국 자체는 큰 변화 없이 제법 안정적으로 보였다. 우리 선교사들도 이 곳을 나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한 채 그저 R국 내의 움직임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기분이 들 뜬 어느 날인가 오마르가 심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자기 친구가 미국인들과 일을 하는데 미국인들이 돌아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내 눈치를 살폈다. 오마르의 눈은 '너도 갈 꺼냐' 라고 묻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며 오마르를 안심시켰다. 그제서야 오마르는 활기를 되찾으며 그 특유의 수다를 늘어 놓았다. 미국인과 같이 일하는 오마르의 친구는 원래는 무슬림이었다. 함께 일하던 미국인 중에 돌아가지 않는 미국인이 있어서 그 친구가 "넌 왜 돌아가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라는 미국인의 대답에 감동해서 그 친구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무슬림이 잘못했으며 자기도 크리스천이고 싶다는 심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오마르에게 난 돌아가지 않는다고 약속 해 놨는데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R국에 '빈 라덴' 의 훈련소가 있으며 '빈 라덴' 이 몇 년간 머무른 적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오마르는 상황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 날 이후로는 성경공부도 되지 않았다. 나도 그저 교재를 던져주며 읽으라고만 했다. 그래도 여전히 떠듬떠듬 읽는 수준이라 카세트 테이프로 된 예수님 일생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오마르에게 넘겨 주었다. 어느날 짐 정리를 하다가 같이 밥을 먹는데 된장을 떠 먹는 오마르를 보고 처음에 된장을 못 먹던 오마르가 생각나 "이젠 된장 잘 먹네" 했더니 오마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었다. 그리고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나올 때마다 오마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몇 번이나 나를 끌어 안고 또 끌어 안았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오마르는 완전히 개종하는 것을 못 본 채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다. 몇 개월간 우리들이 나눈 성경은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돼서 개종에 걸림이 되었지만, 오마르는 진리를 알기 위해 계속 물어 보았고 나 또한 거짓 없이 증거했다. 우리의 만남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며 앞으로의 오마르의 변화를 기다려 본다. 아직도 오마르와는 전화로 연락하며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오마르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세계관 ❼

Made in 우연?

세상의 모든 제품들은 상표가 있다. 이 상표를 보면 그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짜가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원래의 상표를 도용해서 속이는 것이다.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상가에 가면 상점 물품 중의 대부분이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아마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번쯤을 해 보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답은?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원을 모를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이란 없다. 허황된 환영을 좇아 살다가 갈 뿐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믿는다.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어떤 물질들이 조합이 되고, 그 물질들이 우연히 서로 얽혀서 생명체가 되고, 우연히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야말로 "Made in 우연" 이다. 우연한 세상에서 우연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꿈 같은 이야기이다. 바보라 해도 이렇게 반복되는 우연에는 고개를 흔들 것이다.

최근 넓게 인정받고 있는 Big Bang이론은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 Big Bang이 되기 전의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것이 과학주의(Scientism)의 맹점이다. 과학은 가설을 시험해서 실증을 하고 확인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온통 가설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현대인의 기준이 된다. 이런 가설들에 관해서 논쟁을 한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하다. 수학적 계산으로 그 비율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바람이 한번(한번이다!) 훅 불자 인천 국제 공황이 된다는 확률보다 낮다.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 기독교의 교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 세상은 "Made in 하나님" 이라고 (다음주에 계속) (안창덕 목사)

라마단이란 무엇인가?

강 기 엽 (협력 선교사)

라마단은 무슬림(회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라마단 달(무슬림 해 가운데 9번째 달) 동안 지키는 금식 달이다. 무슬림들에게는 지켜야 할 다섯 기둥이 있다. 즉 신조의 낭송, 기도, 금식, 자선 그리고 순례인데 그 중 금식이 바로 라마단이다. 금식은 자기 절제와 신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 가난한 이들과의 동질감을 나타내는데 병자들, 여행자들, 임산부들, 경도 중인 여성, 젖 주는 어머니들과 어린아이들은 제외된다.

라마단 달 동안 모든 무슬림들은 첫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음식, 흡연이나 성교등 완전한 욕망의 절제를 포함한다. 심지어는 침도 삼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무슬림 해(年)는 음력이므로 금식은 때때로 한 여름에 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해가 길고 햇볕이 강렬하여 물을 안 마시는 것은 특히 가혹한 시련이 된다. 한 여름이 아니더라도 무더운 날씨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대체로 이것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가장 잘 먹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거리에 아이들도 음식을 나누는 어느 곳에서든지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구제와 선행의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라마단 기간에 여행을 하다보면 빈 광장이나 학교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 이들은 거의 누워서 지내게 된다. 경건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잠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직장인들은 해뜨기 전에 음식을 먹은 후 출근해서 일찍 퇴근을 한다.

이 라마단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 국가나 개인들은 알라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만의 힘의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모스크에서 알리는 기도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문을 닫는 상점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자선행위, 해질 무렵의 일제히 텅 빈 도로, 이것들은 라마단 기간 중 회교권 국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이다. 이들의 이런 결속력 때문에 가끔 위압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그렇지만 모든 무슬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때가 많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55번째 파마 손님

유 재 춘 (17교구, 권사)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봄 가뭄에 피해는 없으세요?"

우리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교회 앞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 댁을 찾아 인사했다. 작년 농어촌 여름 사역 때, 그분은 교회 올라오는 길에 곡식을 널거나 이불을 펼쳐 놓아 교회차가 못 다니도록 방해하던 '핍박자' 였다.

"금년엔 담에 오이가 없네요. 좀 사갈까 했는데". 조금은 힘 없는 목소리로 "심지 못했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6개월간 입원했었어" 하신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어요. 목사님이 아셨으면 기도해 드렸을 텐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조금씩 아파" 하시며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좀 있다 교회에 올라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파마도 하세요.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우린 교회로 가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며 복음을 전했다. 그날따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순번을 정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전화번호를 물어 적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날도 몇 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교회 입구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가 55번째 손님으로 계면쩍어 하시며 올라오신다. 우린 아주머니를 반갑게 맞아 머리를 말아 드리고 동네분들이 앉아 기다리는 곳에 가서 앉으시게 했다. 아주머니는 쑥스러우신지 다른 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계셨다. 마음 속에서 '기회는 이 때야. 복음을 전해야지' 하며 성령님께서 재촉셨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포도 한 송이를 접시에 담아아주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주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며 말문을 열었다. 고개를 흔드신다.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4영리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권면했다.. 아주머니는 시부님께서 반대해서 아직은 안되겠다고 변명하신다. 언젠가는 나오시게 될 텐데 그 때까지라도 교회에 협조하시기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했다.

3개월이 지나 그 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미용 사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차량 문제를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숨은 손길을 통해 준비해 주셨고, 11월 초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 전에 영접기도를 드렸던 분은 교회출석을 잘 하시는지, 그 교회 앞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얼마나 변하셨는지 궁금했다. 이번에도 우린 그 55번째 아주머니를 찾아 뵙고 머리 손질을 해 드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자였던 그분이 가장 가까운 주님의 협력자로 바뀌길 간구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사귐을 기대하며

김 효 연 (고등부)

코이노니아(Koinonia)는 교제 혹은 함께 나눈다란 뜻이다.

11월 17일 토요일, 고등부는 코이노니아 밤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신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친구들간에 사귐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 학생회 임원이 되었을 때 겨울수련회를 준비하였다. 왜 그렇게 행사준비를 할 때 투덜거렸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밤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금 코이노니아 밤을 준비하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코이노니아 밤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사실 코이노니아 밤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너무 게을러진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점을 친구들을 통해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나를 아낌없이 도와주시며 함께 하신다.

이번 코이노니아 밤의 주제는 "천 년이 두 번 지나고…그리고 천국"이다. 성경을 통해 천 년의 두 번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상상을 통해 천국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주라는 짧고도 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그날을 부족함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임역원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코이노니아 밤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많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 전부를 계획하신 분. 그분을 위해 나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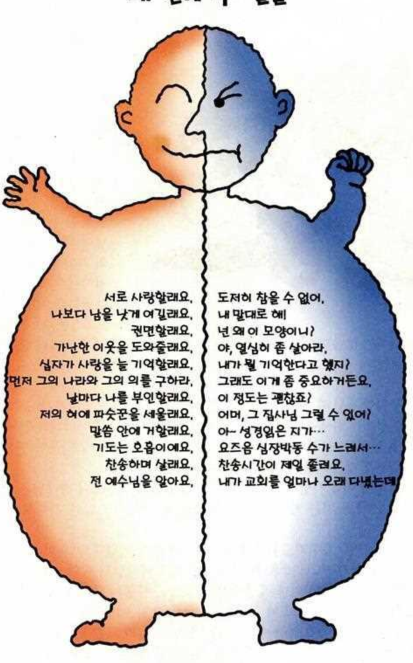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코이노니아 밤……. 주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

만평

글·그림 : 이종원

내 안에 두 얼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고등부 교사를 맡으면서

변 혜 원 (고등부교사)

아이들을 만난 지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나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처음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고3 아이들과 첫 대면을 하였다. 난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아이들이 나를 잘 따라줄 지,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날 좋아하고 받아줄 지 하는 이런저런 생각과 부담, 두려움으로 자신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겼다. 그 은혜로 나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새 우리반 아이들과 많은 정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아닌 친누나·친언니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떠한 고민이라도 다 털어놓을 정도로 가깝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로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실 난 고등부 교사를 하기 전, 내가 어느 누구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던 내 자신이 헌신적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내가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기도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의 때

박 수인
(2교구. 고등부교사. 시인.)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본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분은
나를 위해
미리 이루셨다

나는 단지
내게 허락된
그 시간에
그 분의 하신 일을 확인할 뿐

나는 경험자가 아니라
확인자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

구역 일지

멀다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가까워요

12교구 윤촌 1구역

경기도 일산 안에서도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은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다. 전철로 한 시간 반,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한 시간, 매 주일 누구보다 앞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교회 바로 앞에 사시다가 우리 구역으로 이사오신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교회 가까이 살 땐 새벽기도고 철야예배고 힘든 줄 모르고 다녔는데, 멀리 이사를 가면 교회가는 게 힘들어서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는 집사님. 그런데 오히려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은혜 속에 보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다.

우리 구역엔 유난히 어른들이 많다. 그 며느리 정도 되는 30대가 몇 분 계시지만 그 사이의 연령대는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다 보니 온 식구가 어머니와 딸처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한참 나이 어린 집사들에게 항상 깍듯이 인사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섬기는 마음을 저절로 배우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지난 10월 25일, 충현기도원에서 교구 영성훈련이 있었다. 개회예배와 폐회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3:15).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절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면면을 짚어가며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에 따라 주님을 본받아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4~5)

교회가 멀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가까운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 생각으로 미리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심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는 반성도 했다. (이숙진 구역장)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애 정' 자매를 소개합니다

일산에 살고, 아직 미혼으로 지금 웨딩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충현교회에 나왔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이 인상적이었구요,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는 것도 늘 깨닫게 됩니다. 새가족부 환영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현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권 치 구' 형제를 소개합니다

신대방동에 살고 있으며 동생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직은 교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해집니다.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며 신앙이 성장해가길 바랍니다.

한 숙 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호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12교구 차정병 성도(여76세) 정신이 허약해져 현재와 과거의 구분을 잘 못 하여 분별력 없이 횡설수설합니다. 또 죽은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심신이 강건하여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김은영 집사(여65세) 다리를 다쳐 기부스를 하고 통원치료 중으로 1개월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완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4교구 한길수 성도(여67세) 유방암 수술을 했으나 폐에 물이 차는 등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챨스 하지

경건한 프린스톤 사람

뉴저지 언덕의 한 조그만 동네 프린스톤에 대학이 세워지고 1812년에는 신학교가 세워졌다. 이곳에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쟁쟁한 영향을 미쳤던 목사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다.

'하지'는 1797년 필라델피아의 어느 경건한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 아버지는 죽었고 그와 형 넷은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졌다. 어머니는 주일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고 그들에게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쳤다. 하지는 어머니의 영향을 잊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일했고 고통받으셨다"라고 고백했다.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만 열네 살이 되었을 때 그는 프린스톤 대학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감명을 준 상대는 신학교의 교수들이었다. 그는 유명한 알렉산더 교수가 새로 생긴 신학교에 취임하면서 했던 설교를 들었다. 그는 목사가 되기로 본래부터 결심하고 있었지만 설교를 들으며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였다. "대학을 마치면 나는 저분에게 신학을 배우리라!" 이 일은 4년 뒤에 이루어졌다.

그의 마음 속에 언제나 자리잡고 있는 것은 전도의 뜨거운 불길이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혼을 구하는 열정이 아주 강하여서 나의 육신의 일에는 거의 무관심한 형편이었다"라고 말할 지경이었다.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나 영적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받아들였다.

챨스 하지는 앉아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연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자신의 글에 표현하였다. 그는 프린스톤 신학교에 무려 46년간이나 교수로 있었으며, 약 3천 명의 목사들이 그에게 교육을 받아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의 경건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 강해졌다. 그의 경건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같았고 변치 않았다.

하지는 1878년 여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께로 인도한 한 평생이었다. 눈을 감으면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주를 뵙는다는 것이요 주를 뵙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되는 것이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다음주일 찬송

43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어려서 시력을 잃어 시각 장인이었던 화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1820~1915)는 95세를 살면서 7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는데 이 찬송은 1875년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작시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5달러가 모자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는 어떤 낯선 사람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작별 악수를 하고 손님은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5달러가 쥐어져 있었다. 원문을 번역하면

1절-"나의 일생 여정을 구주가 내내 인도하시는데 이것 외에 내가 무엇을 간구하리요. 내 일생 내내 인도하신 주의 부드러운 자비 의심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께서 모든 것 유익하게 이끄시니 하늘의 평화, 가장 거룩한 위로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깃드네"

2절-"나의 일생 여정을 구주가 내내 인도하시니 구부러진 길 지날 때마다.주가 내게 용기주시며 모든 시련 이기게 은혜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날 먹이시도다. 나의 걸음 곤비하여 비틀거리고 나의 영혼 목마를 지라도 나의 앞의 반석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남을 나 보도다"

3절-"나의 인생 여정을 구주가 내내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이 충만하네! 하늘 아버지 집에서의 완전한 안식 내게 약속되었네. 영원한 옷을 입은 내 영혼이 빛의 나라를 향해 날아갈 때 영원한 세계에서 부를 내 노래가 이것이니 '주 예수께서 내내 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다"

이 찬송은 3/4박의 전형적인 곡으로 부드러우면서 은혜롭게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천국 학교

바른 기독교

박 경 배 (소년부교사)

엔도 슈사꾸의 '침묵' 의 배경은 1610년대로 올라갑니다. 일본은 카톨릭에 대해 조직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결국 일본의 마지막 신부인 세바스찬도 배교(背敎)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방 영주인 이노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아직도 카톨릭 신도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이 남아있소. 그러나 관헌에서는 이제 그들을 체포할 생각이 없소. …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지면 줄기도 잎도 썩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그 증거로 농민들이 몰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카톨릭교의 하나님과 비슷해도 사실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가?

비근한 예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므로 예수님을 대자대비한 아미타불식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위선적인 신앙과 위정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칼날같은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는 한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지시지만, 잘못된 천국관념을 가진 유대교의 신앙모순에는 온 몸으로 저항하십니다.

또 다른 한 예로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교의 영향 아래 있었고 아직도 그 영향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는 이렇다할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이 약합니다. 현세위주입니다. 未知生而焉之死乎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 공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듣는 덕담은 주로 현세의 축복과 장수(長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 종교는 한 마디로 죽음을 이긴 종교입니다.(고후 15:50) 신약성서 전체는 생명이 죽음을 삼킨 기록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있는 신앙에 의해 성도들은 '이 세대를 장막' 으로(벧후 1:13) 여기고 죽음을 넘어 '주 예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고후 3:8)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유교와 기독교는 추구하는 세계관 자체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생의 정신으로 기독교 옷을 입으니 '예수 믿으면 존경받고 잘 산다' 라는 식의 한국교회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큰 건물에 사람수만 많게 되면 직분자로서, 성직자로서 성공했다고 만족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설교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설교가 더 인기 있습니다. 어딘가 좀 잘못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가치관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오직 주 예수의 은총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토속, 혼합기독교의 풍토 속에서, 우리 충현교회는 4년째 순수한 복음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단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호소합니다.

"복음이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국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부

김 경 순 (집사, 사랑부 교사)

저희 사랑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 라는 표어 아래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랑부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수시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 금요찬양집회 후에도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골로새서 1:24-29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분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부에 왔을 때 저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지' 생각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부에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담임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하염없이 뒤돌아 보며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선생님을 만나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얼굴을 부비고 볼에 뽀뽀하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사랑부의 모습은 정말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부의 모든 교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끼며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랑부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샘 아모스(Amo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❶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여로보암 1세와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적인 번영은 반드시 종교적인 위선과 윤리적 타락, 그리고 자만심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국가는 자기만족과 독선적인 자만심에 빠졌고, 부자들은 착취와 속임을 통해서 더욱 부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이곳저곳에서 행해졌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비리는 팽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도래하는 줄도 모르고, 번영이라는 달콤한 속임수에 빠진 북-이스라엘! 그들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패망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급속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이 끝난 지 30년만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선포는 번영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시대를 향해서도 심각한 경고가 되곤 합니다. 교회의 표지인 십자가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 대신 재물이라는 우상에게 구원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의 신랄한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모스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그의 이름은 '고난을 지고 가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출신지는 '베들레헴' 에서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드고아' 라는 지방이며(1:1), 직업은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고(1:1), 뽕나무를 재배했습니다(7:14). 그렇다면 이처럼 아모스는 평범한 평민 출신의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지자로 쓰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포에는 모세오경에서 인용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4:1→신 15:7~9 / 4:4→신 4:28, 26:12 / 4:5→레 2:11, 7:13 / 4:6~7→신 28:23,48 / 5:7,10→출 23:6~8 / 5:21→민 29:35).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된 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몰라서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잘 깨닫고 있었고, 양을 치는 목자였던 까닭에 자기의 백성을 양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이사야가 53장 6절에 표현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고백은 아모스가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겠지요!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 출판국 지도)

Catechism

7.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1) 인간의 타락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간계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거룩한 모습에 손상을 입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타락한 결과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음 1.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렘 17:9).

물음 2. 누구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롬 5:12).

물음 3.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내용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롬 6:23).

(2) 인간의 전적 부패와 형벌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으며 현실에서는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음 1.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롬 3:23).

물음 2. 그러면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요일 1:8,10).

물음 3. 모든 범죄자들의 최종 결국은 어떠할까요?

모든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게 되는데(계 21:8) 이것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음 4. 육체의 소욕, 즉 범죄로부터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됩니다(갈 5:16-17). 다시 말해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막아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하고자 하는것을 못 하게 합니다.

(오용진 전도사-고등부 부지도)

교회소식 / 새가족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5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6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6:00
   장소 : 감사위원회실(교육관 208호)
4. 경찰전도회 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장소 : 메추라기홀
5. 이미용전도회 월례회
   일시 : 8일(목) 11:00
   장소 : 영아부실
6. 안수집사회 월례회 및 부부찬양 연습
   일시 : 오늘 15:30
   장소 : 교육관 314호
7. 권사1지회 월례회
   일시 : 7일(수) 수요 1부 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6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407호
2. 바울 16지회 월례회 및 노방전도
   일시 : 6일(화) 10:00
   장소 : 대공원 지하철역 2번출구앞
3. 베드로 1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화) 19:00 부부동반
   장소 : 교육관 201호
4. 요한 6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407호
5. 한나 4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제2교육관 1층
6. 한나 10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7. 에스더 4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화) 11:00
   장소 : 영아부실
8. 마리아 3지회 월례회
   일시 : 9일(금) 11:00
   장소 : 교육관 109호

별 세

1. 노창용 성도
   (노승복 성도 부친, 김동순 집사의 시부, 15교구 상도1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2. 박종현 성도
   (김정식 집사의 장남, 9교구 상봉구역) / 25일 별세, 29일 장례
3. 조덕진 성도
   (나봉순 성도 부군, 13교구 중동1구역) / 26일 별세, 28일 장례
4. 박찬덕 권사
   (이현숙 성도의 모친, 13교구 가양2구역) / 28일 별세, 30일 장례

결 혼

1. 최동현 군(최정남 안수집사, 양승남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이동숙 양(이정춘 타교집사, 안옥수 씨의 딸, 19교구) / 6일(화) 13:00 갈릴리홀
2. 송제형 군(송병호 집사, 고경숙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김윤희 양(김정식 씨, 최경자 씨의 딸, 19교구) / 10일(토) 13:00 갈릴리홀
3. 공대위 군(공석준 씨, 최은실 씨의 아들)과 전윤진 양(전석환 집사, 박영자 집사의 딸, 17교구) / 10일(토) 14:00 정동제일교회
4. 홍상민 군(홍석강 집사, 이정미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추호정 양 / 10일(토) 14:30 사랑의교회 본당

주소변경

1. 김혜정 집사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3-405, ☎011-9998-4212
2. 마숙전 은퇴집사, 박갑연 권사 울산 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관하리 979-7, ☎052-263-5410

1교구 태신자 초청 전도잔치

일시 : 8일(목) 18:00
장소 : 만나홀

5교구 태신자 초청 전도잔치

일시 : 10일(토) 17:00
장소 : 메추라기홀

장년1부 새신자 초청 전도잔치

일시 : 18일(주일) 12:30
장소 : 교육관 407호

교회 직원모집

1. 근무직 및 자격
① 미화 및 경비직 - 5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
② 음향과장 및 직원 - 30세 이상의 남 · 녀 세례교인, 음향 및 영상관련 경험자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자기소개서 ③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3. 기간 11월 7일까지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대학부 총동원전도 집회를 위한 전시작품 모집

대학부에서는 11월 10일 총동원전도집회를 위한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미술을 전공하시는 청년 · 대학부 및 일반 성도들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대 상 : 미술을 전공한 충현성도의 성화, 성구 작품 및 소장품
제출시한 : 오늘 17:00까지
접 수 처 : 제2교육관 3층 대학부 교사실
전시기간 : 10일(토)~18일(주일)
전시장소 :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문 의 : 대학부 생지처장 박종율 집사 New Creator 이세희(019-9173-0811)

전임 찬양지휘자 초빙

충현교회는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보다 더 영적인 찬양을 드리고자 교회음악에 헌신된 믿음있는 찬양지휘자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자격 : 교회음악 지휘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세례교인으로서 전임(full time)으로 교회음악에 헌신할 사람
2. 제출서류 : 1) 이력서 1통(사진부착) 2) 자기 소개서 1통
   -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개별 통지함
3. 제출마감 : 2001년 11월 17일(토) 도착 분에 한함
4. 제출처 :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 서류 심사 후 면접과 오디션 날짜를 개별 통지함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문의는 충현교회 552-8200(교환 259번)

예 배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오전 5:00	본 당

교회오시는길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1월 중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 각 위원회 산하 전 부서
   단, 남녀 각 전도회는 제외
   (군 · 경찰 · 교정 · 실업인 · 이미용 · 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를 수감할 것)
3. 제출서류 : 시산표(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진체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철, 시재 현금 또는 예금통장(인감 포함)
4. 감사실시기간 : 2001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감사실시장소 :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62	우현수	2	청년2부	심효숙(2)	876	이태완	9	소망부	조순자(9)
863	최희규	2	베드로		877	임순희	10	에바다부	
864	박무원	5	바울		878	김동욱	11	에바다부	김정근(5)
865	태창열	8	바울	김광남(8)	879	이경희	12	에바다부	정경님(1)
866	박병만	7	베드로	김문섭(2)	880	김양자	13	에바다부	김보연(17)
867	최화숙	7	청년2부	김문섭(2)	881	장균	15	바울	허연욱(2)
868	최윤혜	10	청년1부	임창순(10)	882	이은영	15	한나	허연욱(2)
869	조길행	10	에스더	임창순(10)	883	김해순	19	에바다부	
870	강혜원	19	청년1부	정재석(2)	884	정성훈	4	에바다부	이태원(14)
871	황정민	19	청년1부	심효숙(2)	885	이명휘	7	에바다부	강천구(19)
872	백보순	2	루디아	황정희(2)	886	박수관	12	에바다부	양석우(9)
873	임영숙	2	루디아	김미경(2)	887	이지혜	19	고등부	
874	이연희	9	청년1부	신문석(9)	888	신재우	19	대학부	최영선(19)
875	김중산	9	소망부	조순자(9)	889	박세라	19	대학부	윤숙상(4)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 조선근 기획위원 / 김은호 성경연구원감 /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 이병학 교구위원장 / 윤인현 선교위원 / 최대원 봉사위원장
엄필성 청년3부장 / 강모용 봉사위원 / 오정헌 1교구장 /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3교구장 / 서동석 당회부서기 / 정운석 8교구장 /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 조인제 유아원감 / 김종구 17교구장 / 최무길 예배위원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 이창호 사랑부장 / 차신득 감사위원장 /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봉사위원 / 김광남 재정위원장 / 이종석 5교구장 /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전도위원장 / 박인건 13교구장 / 김인관 6교구장 / 이병옥 제3교육위원장
안종욱 재정위원 / 최명환 7교구장 / 임무천 제2교육위원장 / 이종섭 청년2부장
최기홍 예배위원 / 이갑재 15교구장 / 진홍용 건축위원장 / 전홍렬 9교구장
이정우 새가족부장 / 김단용 제1교육위원장 / 황영일 건축위원 / 손 철 4교구장
한송규 신혼가정부장 / 김영수 선교위원 / 정홍식 전도위원 / 김환기 기획위원
원웅철 12교구장 / 이형수 청년1부장 / 안동현 아멘찬양대장 / 황의만 대학부장
김구형 고등부장 / 최윤덕 실로암찬양대장 / 이계인 임마누엘찬양대장 / 박덕양 예배위원
이태식 10교구장 / 정태두 전도위원 / 박홍규 가브리엘찬양대장 / 권명옥 벧엘찬양대장
조종환 청년2부 부감 / 배춘식 영아부장 / 김영달 사무국 관리과장 / 이실호 중등3부장
박찬섭 예배위원

■ 부목사

이홍성 교구위원회 / 이종대 소망부 / 정현민 1교구 / 김동하 기획위원회 / 차병준 선교위원회
김병태 15교구 / 서광진 2교구 / 정해성 3교구 / 이준경 9교구 / 박인기 에바다부
여성기 10교구 / 류병희 대학부 / 노경묵 17교구 / 이종철 11교구 / 김영훈 고등부
여국근 12교구 / 김교성 16교구 / 송길환 외선부 / 이수근 8교구 / 이유진 5교구
안창덕 13교구 / 방준영 4교구 / 나광영 6교구 / 정진호 7교구 / 김용덕
이성욱 / 고광환 14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여전도사

정연희 14교구 / 김정자 3교구 / 송향자 17교구 / 신동자 5교구 / 윤인숙 1교구
김옥윤 9교구 / 한영준 11교구 / 김연식 2교구 / 홍순애 6교구 / 이옥주 4교구
김말자 8교구 / 안태순 7교구 / 최효심 15교구 / 백명자 12교구 / 김정연 10교구
조옥자 고등부 / 강덕필 16교구 / 김정신 대학부 / 장혜구 청년1부 / 최문실 13교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 선교사 이소영, 최은아 (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